

세계문학의 과제와 보편의 문제

박 상 진
(부산외국어대학교)

I. 세계문학의 부활

세계문학이 부활하고 있다. 세계문학은 일찍이 민족(국민)문학의 일국적 편향성과 편협성을 경계하며 괴테와 맑스가 내놓은 발언과 함께 인구에 회자되었고 문학과 문화의 새로운 가치와 전지구적 작동의 필요성을 주시시켜왔다. 세계문학의 초점은 지역으로부터 세계로, 시와 소설과 같이 대단히 한정된 ‘문학’으로부터 더욱 넓게 ‘문학적인 것’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그런 이동과 거기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세계문학이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떠한지 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문학을 둘러싼 새로운 문제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문학은 문학과 그 관련 문제들을 보게 해주는 통로이지만 그 자체로서 확정된 규범적 정전은 아니다. 세계문학은 지리적 경계로나 다층적 의미의 측면에서 세계‘들’의 문학‘들’을 다시 보고 다시 평가하는 하나의 장이지만 그 장에 오르는 것 자체가 세계문학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세계문학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면서 또한 다다라야 할 목표다. 있으면서 동시에 되어야 할 무엇으로서 세계문학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던지고

있으며 또한 그와 연루된 최신의 문제들은 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외에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세계문학 논의에서 세계문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세계문학의 문제에서 보편과 타자 혹은 주변부의 문제들, 혹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세계문학은 ‘세계’와 ‘문학’의 문제이지만, ‘문학’의 보편성에서부터 출발할 때 ‘세계’의 문제도 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다. 다만 문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고와 정서를 펼쳐내지 못하기에 문학의 보편성은 제한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학의 보편성이 제한되고 왜곡되는 양상은 대개 여러 종류의 중심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민족주의와 그것이 기형화된 제국주의(근대의 분과학문체제에 기반을 둔 학과중심주의도 이들에 닿아있다)는 대표적인 중심주의들로서, 그들이 동반하는 문학은 그들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이념을 가리거나 치장하는 데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항을 의식하는 것 또한 문학의 역할이다.

예로, 한국문학은 다른 비서구 문학들이 대개 그러하듯 그동안 세계문학의 차원에서 소외되어왔지만, 한국문학의 자리를 새롭게 상상하는 일은 중심주의를 넘어 문학의 보편성을 다시 세우는 데 꽤 요긴하다. 세계문학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특수와 보편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문학의 자리를 재배치함으로써 이른바 주변부문학으로서 지닌 주변부성의 동력을 재점검하고 작동시키는 작업은 문학의 정체성의 끊임없는 천착을 추동시킨다. 그것은 한국문학의 문학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문학의 전지구적 민주화라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에 직결된 사항이다. 국민국가의 경계나 문학과 타 영역들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는 비교문학은 바로 그러한 큰 기획을 추진하는 최전선에 서있는 학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세계문학이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는지 살피는 과정에는 꽤 다양한 문제들이 연루된다. 이 짧은 지면을 빌어 주로 세계화와 주변부화, 동아시아론, 보편성과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들 사이의 관계를 짧은 글에서 추적하고 정리하는 일이 벅차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지만, 세계문학 문제의 ‘지형’을 둘러보는 이 글의 목표에 다가서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그 ‘지형’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 새롭게 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문학이란 무엇이(라기보다는)어야 하고, 이른바 한국문학이 그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론 앞에서 말한 문제들은 그 저변에 깔려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앞으로 더욱 상세하게 고찰되어야 할 내용을 늘어놓은 ‘서문’과 같은 성격임을 미리 알려둔다.

II. 세계문학이라는 과제

세계문학은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라는 하나의 현실이며 물질적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념과 운동, 기획, 의식으로서의 세계문학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 토대가 동일화된 지구화된 세계에서 주변부성, 나의 용어로는 특수성이 잘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수성이란 토착문화 보호주의(nativism) 같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체를 비동일화하는 거점이자 과정이고, 거기서 (보편성universality 자체보다는) 보편화(universalization)의 작동도 일어난다. 여기서 보편화란 보편성의 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가리킨다. 어떤 한 텍스트의 보편성은 있느냐 없느냐로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얼마나 지니고 또 유지하느냐 하는 것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텍스트는 물론 보편성 자체도 하나의 동질적인 범주에 머물지 않게 하는 비동일화의 원리인 것이다. (비동일화는 동일성의 범주를 결코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비동일화와 보편화의 과정에서 하나의 특수한 언어나 민족, 지역에서 생산된 문학을 토속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전히 교묘하게 작동하는 오리엔탈리즘을 계속해서 분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로, 남미의 미술적 리얼리즘이 서구의 문학 양식을 남미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성과로 볼 수 있는 한편 중심/주변의 위계를 더 확고하게 만들거나 중심의 변칙적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비판은 이런 식의 논의에서 나올 범하다.

한 쪽에서 세계문학은 유령이 되어가고 있다. 누구나 세계문학이라는 이름

을 달고 시장을 확장하려 한다. 이런 현상에는 장르의 다양화가 두드러진다. 스토리텔링이나 영화, 컴퓨터 게임과 같은 비문학적 매체와 결합되는 문학들, 또는 그렇게 결합되면서 등장하는 문학들은 시장주의적 세계화의 무대에서 문학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계문학은 아닐 터이다.

우리는 세계문학을 하나의 도전해야 할, 도전을 부르는 과제로 밀어닥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고, 거기에 텍스트로, 이론으로, 입장과 자세로 응전해야 한다. 여기서 ‘문학’을 대하는 ‘우리’라는 것을 더 면밀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반복하건대, 문학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다. 문학을 이루는 언어, 문학이 거점을 두는 장소, 문학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 문학은 이들을 모두 넘어서고 또한 이어주면서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문학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라는 주체는 문학을 하나의 ‘문제’로 열어두는 데 동의하고, 그 문제를 논의하면서 타자와 소통하고 스스로 타자가 되려는 끝없고 끊임없는 실천을 하는 존재 혹은 그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처럼 ‘우리’가 특히 비서구인을 가리킨다고 할 때에도, ‘비서구인’이 서구의 동일화된 정신적 영역에 가두어지지 않은 주체를 가리킨다고 볼 때, 서구의 한가운데서도 ‘비서구인’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우리’라는 용어는 보편에 대해 ‘타자화적’ 접근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주체를 가리킨다.¹⁾ 결국 ‘우리’라는 용어는 자체 내에 배타적 주체성이 기입되기를 거부하며, 오히려 그에 대한 저항

1) ‘타자화’를 다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리엔탈리즘의 단계에서 타자는 이질적이고 낯선 것으로 그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지 않은 한편, 제국의 단계로 나아가면 타자가 더 이상 타자가 아닌, 동일성의 거대 체제로 흡수된다. 이것이 타자화의 한 효과인 반면, 우리는 이제 타자의 위치를 다시 살려 내야 한다. 이것이 타자화의 다른 효과일 텐데, 타자가 동일화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타자를 타자로 인정하고 타자를 대화의 상대로 삼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타자를 인정하는 주체도 타자로 봄으로써 주체를 고착된 자기중심에 빠지지 않고 소통의 출발점에 서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타자화의 반복되는 연속적 과정에서 동일성은 계속해서 해체된다. 그 과정에서 특수한 타자의 위치는 끝없고 끊임없는 비동일화를 통해 복수(複數)의 보편들을 상징하며 스스로를 보편의 위치에 놓을 수 있게 된다.(줄져, 『비동일화의 지평: 문학의 보편성과 한국문학』, 고려대출판부, 2010, pp.21-22쪽)

과 부정의 지속적 과정을 담아냄으로써 타자화의 거점이자 과정이 되는 존재로 이해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은 곧 그 자체로 세계문학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을 크게 지닌다. 모든 경쟁자들이 무조건 인정하는 절대적 참조점으로서의 ‘문학의 그리니치 표준시’로 표상되는 카사노바의 세계문학론²⁾(그 실례로 카사노바는 프랑스 근대문학을 든다)의 결정적 단점은 문학의 고정화와 좌표화에 있다. 물론 카사노바는 중심과 주변부 문학의 긴장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업적이 있으나, 그러한 이분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중심과 주변부, 혹은 근대와 전근대의 이분법은 ‘따라잡기’의 경제적 근대화론과 거기서 비롯하는 중심주의의 끝없는 회귀를 상기시킨다. 그런 식의 카사노바의 세계문학공화국 구도에서 한국문학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카사노바를 비판하는 내용은 이제 공공연하다. 문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윤지관은 주변부성이 오히려 기존의 세계문학 질서를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의 터전일 수 있음을 전제하고, 한국문학이 개입의 방식으로 어떻게 세계문학의 이념 실현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³⁾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세계문학을 둘러싼 우리의 논의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세계문학의 이념’이라든가 ‘한국문학’이라는 것들이 마치 하나의 객관적 실체들처럼 간주되는 것은 곤란하다. 무엇을, 어떻게 세계에 내놓을 것인가의 물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놓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놓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우선 문제로 삼지 않는다면 그러한 물음은 무의미하고 위험하게까지 된다. ‘세계’는 시장화된, 세계화된 물질적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상과 방식까지 내포하는 용어다. 특히 ‘세계문학’이라고 말할 때 그러하다. 예컨대 문학 ‘시

2) Pascale Casanova, *The World Republic of Letter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카사노바의 세계문학론에 대한 국내의 논의들은 다음을 참고할 것.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10, 286-296쪽; 유희석, 「세계문학의 개념들: 한반도적 시각의 확보를 위하여」, 『세계문학론』(김영희·유희석 엮음), 창비, 2010, pp.60-66쪽.

3) 윤지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둘러싼 쟁점들」, 『세계문학론』, 194쪽.

장'에 대한 불 뎀 불평보다는 문학적 가치 평가라는 더욱 근본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 나는 이른바 진정한 보편적 문학 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문학 텍스트들에 대한 전면적 재조명과 재평가를 수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한 바 있다.⁴⁾ 거기에는 호메로스와 단테와 같은 '중심'의 작가들도 예외가 아니며 김만중과 박민규와 같은 '주변부'의 작가들도 예외가 아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다분히 정진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

세계문학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사이 어디에서 이분법을 계속해서 유보함으로써 근대와 중심의 '빛'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주변부와 전근대의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존재와 실천의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견지하는 특수성, 즉 토착문화 보호주의와 같은 '특수'한 입장을 비동일화하는 능력과 입장을 갖춰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특수성을 작동시키는 유용한 개념으로 반주변부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것을 한반도적 시각이나 분단체제 극복의 노력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려는 일각의 담론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중심을 이루지 않으리라는 한에서 꼭 유용하고 생산적일 수 있다.

III. 동아시아 담론

주변부와 전근대의 재조명과 관련해서 동아시아에 관한 담론은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동아시아론은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을 생각하는 우리가 우선 직면해야 할 하나의 문제이면서 한국문학이 일국적 편향성과 편협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구체적인 맥락이며, 그 내부에서는 대단히 복잡한 역사적, 문화적 지형들이 얽혀있다. 그 이유는 아마 동아시아 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매개로 자리해왔다는 것보다는 그 내부에 이질성과 동질성을 함께 갖고 있는 하나의 (반)주변부적 큰 단위체이기 때문일 것이

4) 줄고, 「동아시아에서의 단테의 수용과 변용을 통한 문학의 보편성과 근대성」, 『문학과정』, 2006년 겨울호, 77-96쪽.

다. 예전에 식민지적 관점에서 동아시아가 여러 타자들 중 하나였다면, 현재의 제국의 차원에서 동아시아는 하나의 대표 타자(One Big Other)가 되었다는 지적⁵⁾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동아시아를 논의하는 데 여전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레이 초우도 같은 책에 기고한 글에서 비슷한 점을 지적한다.

오늘날에도 타자라는 이름으로 유럽중심적이며 국가지향적인 문학 모델을 사용한 “아시아 명작(masterpieces) 비교연구”와 같은 제목의 출판물들이 보인다. 이 경우, 문학은 사회적 다위니즘에 따른 국가 분류에 종속된 개념이 된다. 즉, “명작”은 ‘지배’ 국가와 ‘지배’ 문화에 상응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도, 중국, 일본 등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들로 인지되는 사이, 상대적으로 서구에 덜 알려진 한국, 대만, 베트남, 티벳과 같은 나라들의 문화는 절대 ‘타자’로서의 ‘위대한’ 아시아 문명에 대하여 또 다른 ‘타자들’로 주변화되고 있다.⁶⁾

위에서 초우는 동아시아가 하나의 단일체로서 서구에게 소외된 타자로 인지될 가능성과 함께 동아시아 내부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들이 타자로 배제되는 현상을 생각한다. 그런 끔찍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계화하고 동시에 지역화하는 이중과제적 구도를 동아시아 내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리의 기대 혹은 기획과는 별도로 세계문학 담론이 서구중심적으로 전개되어 간다는 우려는 언제나 한 켠에 도사리고 있다. 세계문학에서 ‘세계’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세계’의 인식에서 서구와 함께 서구화된 비서구 세계가 구별 없이 공존하듯, 오리엔탈리즘의 타자의 존재와 개념은 여전히 작동한다. 즉, 동아시아는 계속해서 낯선 타자로 남는다. 설령 동아시아에서 출판되는 세계문학 전집에서 동아시아의 작품들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소외되고 배

5) Kwame Anthony Appiah, “Geist Stories”, *Comparative Literature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ed. by Charles Bernheim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52.

6) Rey Chow, “In the Name of Comparative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p.109.

제되는 ‘타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초우의 인식이다.

세계문학 담론의 근저에는 오리엔탈리즘과 유럽중심주의와 같은 담론들이 이전보다 더욱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다. 가야트리 스피박은 (세계문학을 논하는) 비교문학 담론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인종주의와 문화우월주의를 지적하고 비판한다.⁷⁾ 한편 데이빗 댐로쉬는 비교문학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기존의 세계문학 담론의 객관성과 포괄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⁸⁾ 그에 더해 우리는 세계문학 담론을 형성한 기원적 추동이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를 거치면서 축적된 서양의 ‘오랜’⁹⁾ 문학연구 전통에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세계문학이 어디에 터를 두느냐, 세계문학의 자리가 어디냐 하는 물음들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물음들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문학이 세계를 소통시키고 문학을 그 매체로 삼는다는 원래의 취지가 우리의 현실에서 자꾸 손상되기 때문이며, 또한 그 손상의 주된 원인이 중심주의에 대한 끈질기고 집요한 추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혹은 중심주의 자체가 그러한 손상을 조장하기도 할 터이다) 위에서 말한 현상과 비판의 흐름 전체가 세계문학의 진정성을 생각하는 대신 비교문학의 재탄생을 이끌면서 미국 중심의 비교문학이 전지구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지 여전히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세계문학은 끝없고 끊임없는 의심의 도마 위에서 언제나 새롭게 조리되는 요리와도 같은 것이라는 비유도 가능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동아시아의 내부에서 작동시켜야 할 세계문학 문제의 지형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 세계문학 담론이나 동아시아 문학 담론에서 중국과 일본의 ‘타자’의 위치에서 조명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맥락(역사, 문화, 문학, 사회...)과 연관되어 설명되는 한에서만 비로소 미미하게 관심을 받는

7) 가야트리 스피박, 문학이론연구회 옮김, 『경계선 넘기: 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Death of a Discipline), 인간사랑, 2008.

8) David Damrosch, *What is World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9)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에서 순례자 단테가 지옥과 연옥에서 만나는 인물과 풍경, 개념 따위를 묘사하면서 되풀이하는 ‘오래된’이라는 형용사는 서구의 문화적 정체성의 역사적 깊이를 은근하게 내비친다.

처지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반도 중심주의’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위치를 앞세우는 흐름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중국에서의 유교나 주자학도 조선에서만큼 엄격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노리나가 ‘가라고코로(漢意)’라고 부른 것-원리·체계를 과잉되고 엄격하게 고집하여 현실적인 섬세한 차이를 억압하는 태도-은 사실 ‘韓意’였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말하자면 조선은 주변부에 위치하면서 중심의 의식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⁰⁾ 가라타니의 말대로 조선의 위치가 역설적으로 중심을 지키려는 주변부적 태도였다고 한다면, 문제는 그러한 운명적인 ‘지정학적 관계’ 혹은 잘못된 ‘주변부성’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작동시키지 못한 것에 있다.

해결은 앞에서 비동일화 혹은 타자화라고 불렀던, 타자의 위치의 유동화에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양의 지배와 싸우면서 동시에 아랍 사회의 전통적 지배와도 싸웠다. 사이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 즉 인식 대상물도 되지 않고 미적 대상물도 결코 되지 않는 개인의 인간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억압하는 것-그것이 서양이든 오리엔트든-과 계속 싸운다는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와 ‘타자화’가 가리키는 내용이 그러한 것이다. 문제는 동아시아와 한국이, 또는 그 누군가, 그 어딘가가,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적절히 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IV. ‘포스트’의 유희적 사고와 보편의 문제

타자의 위치의 유동화. 내가 비동일화 혹은 타자화라고 부르는 그러한 운동성은 세계문학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그 작동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 운동성을 구체적으로 ‘포스트’라고 불리는 현상 혹은 담론에 연결시켜 고찰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 논의에서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관계는 보편과 특수 관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환기될 것으로 믿는다. 세계문학에 대해 최근 이루어진

10)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내이션과 미학』, 도서출판 b. 2009, 224쪽.

논의들에는 다분히 동어반복적인 측면이 있다. 중요한 얘기들이지만 자꾸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백낙청 식의 “괴테-맑스적 (세계문학의) 기획”이든 모레티의 통계적이고 수량적인 접근이든, 카사노바의 유럽편향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든 “세계문학공화국”이든, 댐로쉬의 좀 더 본격적인 재성찰이든, 세계문학은 무릇 이리이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러한 논의들 자체는 더욱 더 탄탄해져야 한다. 그러나 괴테 식의 논의를 표면만 어루만질 것이 아니라 더욱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하는 일, 구체적인 텍스트들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일, 새로운 시각과 개념을 제안하고 응용하는 일, 그리고 그러한 각론과 심화, 제안의 작업들을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그에 더해 필요하며,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논의들은 더욱 탄력을 얻을 것이다.

얼마 전에 발간된 『세계문학론』은 백낙청 식의 민족문학론이 세계문학적 성취와 세계문학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함께 논의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세계성 혹은 보편성에 대한 추구가 그 한 축을 이룬다는 취지를 저변에 깔고 있다. 이념으로서의 세계문학은 세계 민중의 관점에서 서양 고전을 다시 읽고, 유럽중심적 세계문학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도와주며, 거기서 문학의 보편성 실현에 더 다가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단 왜 그것이 “서구의 문학적 성취조차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탈근대주의’와 이와 결합된 문학의 상품화에 대한 저항이 함께 한다”¹¹⁾는 진술로 직접 연결되는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학의 상품화에 대한 저항은 물론 필요하지만, ‘탈근대주의’가 반드시 그 저항을 방해하고 문학적 성취를 위기로 몰아넣는 요인인지 더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백낙청은 현재 포스트모던(“탈근대”)은 충분히 전지구적이지만 포스트모던 문화는 세계문학의 대두나 앞당김이라기보다 그 억압 내지 해체를 뜻한다고 말한다. 백낙청의 지적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름난 이론가들이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적대적인 것,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것이 세계문학과 민족문학들을 자본주의의 전지구화의 결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대상

11) 김영희, 「지금 우리에게 세계문학은 무엇인가」, 『세계문학론』, 17쪽.

의 일부로 만드는 ‘후기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과거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자리에 새로 들어선 시장 리얼리즘이 세계문학의 지형을 지배한다는 진단도 옳다.¹²⁾ 그러나 ‘포스트모던’과 세계문학이 반드시 서로 대치되는 것인가. 결국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겠는데, 해체를 비롯해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 포스트내셔널리즘을 비롯해 트랜스내셔널리즘과 세계시민주의까지 닿는다는 것, 혹은 거꾸로 이들이 ‘포스트’에 기여하는 바를 생각하면, (제국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지배에 반발하는 저항 담론과 현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주는 여전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던’을 포함한 ‘포스트’의 동력이나 지평을 그렇게 간단히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연하면, 앞서 말한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은 포스트모던-이즘을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서 진정한 리얼리즘에 대치되는 것으로 보는 구도를 주변에 깔고 있는 것 같다. 포스트모던-이즘을 가장 협소한 범주에서 본다면 타당한 입장이다. 물론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에 대한 각자의 이해가 엄존하는 상태에서 나의 입장 혹은 나의 이해에 비추어 다른 이의 논의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저 이해와 응용의 범주의 차이 문제일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포스트’의 동력과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세계문학 문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필요성과 가능성을 생각해보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말한 취지의 민족문학론은 유효하지만, 그 유효성은 적어도 세계문학과 관련할 때 ‘포스트’의 지평과 어긋나지 않고 서로 상합하는 한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사실상 백낙청 식의 민족문학론은,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의 논의에서 모더니즘의 긍정적인 기능을 리얼리즘의 한 측면으로 포섭하는 데서 나오는 효과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분명히 그런 상합의 원리와 전망을 내재하고 있다. 문제는 ‘포스트’의 지평이 결코 ‘전면적’ 저항의 대상으로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포스트’의 지평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세계문학을 하나의 운동이자 실천으로 본다면, 즉 ‘문학’과 국민문학

12) 백낙청, 「지구화 시대의 민족과 문학」, 『세계문학론』, 40-45쪽.

들의 보편적 문학가치를 다시 보게 해주는 의식이자 통로라고 본다면, 거기에는 포스트적 사고의 유희가 개입한다. 포스트의 지평에서는 세계문학의 문제의식을 받치는 유희적 사고들이 펼쳐지는 것이다.

‘포스트’의 지평을 구성하는 포스트적 사고의 유희란, 근대성이 새로움의 끝없는 추구이듯, ‘포스트’ 자체, 즉 ‘탈(주)’과 ‘이후’와 같은 운동성과 위치성이 끊임없이 차이를 이루며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포스트’가 자체를 넘어서는 또 다른 ‘포스트’를 전제하거나 그것에 의해 지탱된다는 뜻이다. ‘포스트 이후’는 완전히 새로운 무엇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론들이나 입장들을 선택적으로 재맥락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은 물론 필요하고, 그 한편으로 코뮤니즘과 리얼리즘, 내셔널리즘 같은 것들은 다시 꺼내 담을 필요가 있고, 포스트내셔널리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은 아직 ‘포스트’의 궤도에서 더 굴러가야하며, 포스트식민주의 역시 ‘주변부’의 세밀한 탐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자체의 취지를 더욱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¹³⁾ 그런 한편 로버트 영이 강조하듯¹⁴⁾ 포스트구조주의가 유럽중심주의의 해체에 기여한 바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횡단적 소통이 ‘포스트’, 즉 ‘포스트의 포스트’로 연이어지는 사유 방식이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지역성과 세계화에 대해 급진적인 재성찰을 일으키는 일군의 개념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지향점은 보편주의다. 그 보편주의는 이전의 유럽적 보편주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계문학의 문제에서 새롭게 맞이해야 할 보편적 보편주의다. ‘세계’와 ‘문학’은 이미 보편의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반면, 정작 보편의 개념 자체는 윌러스틴의 ‘유럽적 보편주의’라는 용어¹⁵⁾가 상기시키듯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편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작동되어왔고, 그것은 ‘세계’와 ‘문학’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왔다. 세계문학의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보편의

13) 예로, 가야트리 스피박의 <다른 여러 아시아>(태혜숙 옮김. 울력. 2011)를 주목할 만하다.

14) 로버트 영. <백색신화>. 김용규 옮김. 경성대출판부. 2008.

15) 임마누엘 윌러스틴. <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김재오 옮김. 창비. 2008.

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여러 기회에서 나는 보편적 보편주의를 사유해야 할 필요성과 방법을 이런 저런 방향에서 고찰해왔다.¹⁶⁾ 하나의 보편은 특수들을 횡단하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 각각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런 과정에서 단일한 보편은 복수의 보편들로 분화되고, 각각의 보편들은 저마다 지닌 보편성의 정도, 즉 보편화의 가능성을 얼마나 지니고 또한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다. 물론 이러한 보편의 끝없는 재구성에는 특수들의 횡단과 포용, 특수들과의 상생이 필수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나 적어도 근대 이후에 보편의 문제는 유럽 중심으로 사유되어왔으며, 그러한 횡단과 포용과 구성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텐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제 자체가 끊임없고 끝없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포스트’의 방법과 자세가 필요하다. ‘포스트’는 ‘포스트’ 자체를 품으면서 넘어서는, 앞에서 말한 타자화와 비동일화의 동력을 내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오리엔탈리즘>에서 에드워드 사이드는 거대 담론의 소멸에 강조점을 둔다고 자신이 비판한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자신이 관여한 탈식민주의 사이의 구별을 역설했다. 탈식민주의적 예술가들과 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완전히 반대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사이드는 탈식민주의에 아직 거대 담론이 남아있다는 것을 든다.¹⁷⁾ 사이드는 우리에게 거대 담론을 거부하지 말고, 정반대로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한다. 거대 담론은 다만 오늘날 ‘중단되고, 연기되거나 회피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사이드가 말하는 탈식민주의가 거대 담론으로 돌아가도록(지시) 해주는 매체가 된다면, 적어도 내가 이해하는 포스트모던-리즘의 부류들, 즉 포스티(posty) 이론들은 그러한 매개 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자유로운 사고의 향연(유희)을 벌이도록 해준다. 역사가이며 독립투사였지만, 문학을 통한 실천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생각하는 작가가이기도 했던 신채호는 자

16) 줄고, 「글로벌 시대에 묻는 이론의 자리: 새로운 보편주의를 위하여」, 『세계의 문학』 124호, 2007, 169-182쪽, 줄저, 『비동일화의 지평: 문학의 보편성과 한국문학』, 고려대출판부, 2010; 줄저, 『단테의 신곡 연구』 아카넷. (근간).

17) 윌러스틴, 『유럽적 보편주의』, 71쪽 재참조.

신이 처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단테의 『신곡』을 「꿈하늘」이라는 소설로 번안한다. 단테라는 작가-지식인은 여러 측면에서 그에게 하나의 모범이었다. 문학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선에 제공할 수 있는 진실은 무엇이었던가? 신채호는 그 물음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망명지에서 홀로 「꿈하늘」을 쓰고, 계몽과 투쟁이라는 하나의 대답을 내놓는다(지시). 그런데 대답을 내놓는 과정은 번안, 즉 크게 말해 문학적 유희를 통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진실의 자유로운 상상을 펼칠 수 있었다. 비록 신채호에게는 단테가 따라야 할 하나의 모범이었지만 그는 단테의 진실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를 변용하는 가운데 당대의 자기 민족 특유의 맥락을 편협한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는 방식으로 표출함으로써 저항을 실천하고자 했다.

신채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탈식민주의의 의식을 지녔는지는 모른다. 포스트의 사고를 했는지는 더더욱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의 「꿈하늘」은 분명 자유로운 작가적 상상을 통해 국민적 저항을 더욱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기존에 공인된 단테의 보편성의 기운을 받은 것인지, 그보다는 변용이라는 창조적 배반의 결과였는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꿈하늘」의 문학적 성취는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저항이 더욱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유희적 지시. 그 비틀어져 태동한 개념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스트’의 내적 작용을 지탱하고, 또한 세계문학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로 열어둔다. 거기서 세계문학은 국민문학들 사이의 패권 다툼에 휘둘리지 않고 다수의 국민문학들을 횡단하면서 또한 일정한 국민문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과정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나 거대서사를 거부하지 말고 그리로 돌아가라는 사이드의 요청은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방금 말했듯, 거대서사를 ‘운용’하는 유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중단되고 연기되고 회피된’ 그러한 정황이 거대서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서사를 타자화의 과정 혹은 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주체가 운용하는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예로 내셔널리즘은 거대서사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포기할 수도 없고 마냥 지지할 수도 없다. 포스트내셔널리즘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희적 지시’를 자체 유

지의 방법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포스트내셔널리즘이 내셔널리즘을 넘어서면서 또한 포용하는 구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희와 지시를 함께 추동시켜 나가는 것이 ‘포스트’의 방법론이라고 할 때, 우리는 ‘포스트’의 방법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보편적 보편은 그러한 유희적 지시의 끝없고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 보편을 추구하는 지향과 원리 위에서 우리는 세계문학을 하나의 윤리적 기획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

전지구적 보편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지구적 보편가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인간의 기획은 인류의 위대한 윤리적 기획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강자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넘어서 선에 대한 진정한 공통의 (따라서 훨씬 더 전지구적인) 인식으로 향해 갈 때 성취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지구적인 인식은 그러나 다른 구체적 토대, 즉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 왔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평등한 구조를 요구한다.¹⁸⁾

윌러스틴의 인식을 빌리면, 전지구적인 윤리적 기획이 바로 세계문학의 기본 토대이고,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평등한 구조의 기본 기획이 세계문학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세계문학의 기본 성격은 그것이 전지구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문학’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나온다. 문학이 작동시키는 비동일화의 지평. 그것이 내가 포스트의 ‘유희적 지시’라는 용어로 의미하려는 것이다.¹⁹⁾

18) 『유럽적 보편주의』, 56-57쪽.

19) ‘유희적 지시’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줄고, 「단테를 재현하기 · 단테의 글과 블레이크의 그림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6집, 2004, 45-75쪽. 현재 출판중인 『단테의 신곡 연구: 교전의 보편성과 타자의 감수성』(아카넷)에서 대폭 수정되어 실렸다.

V.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정전의 문제

세계문학은 어떤 특정한 텍스트를 가리키기도 하고 텍스트들의 집합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세계문학은 하나의 배타적 기준이자 억압적 헤게모니가 될 수 있다. 세계문학은 국지적인 문학들을 보편적인 차원에서 점검하고 국지적인 문학들 사이를 연결하며 그들을 서로 타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비교할 때 활용되는 하나의 관점이자 문제로 더 적절히 이해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문학은 한국문학의 차원에서 해석되고 평가될 수 있으나, 나아가 세계문학이 표방하는 횡단적 전망에 의거하여 그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늠하는 작업이 또한 필요하다. 그것은 한국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문학의 문제는 이제 출발이다. 세계들의 문학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하고 다시 분류하는 거대한 작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정전의 문제는 그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정전은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1993년 ACLA 보고서에서 베른하이머는 비교문학이 다양한 경쟁적, 주변적, 혹은 하위 계층의 전망들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정전을 능동적으로 다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댐로쉬는 베른하이머의 보고서를 오래된 정전을 포기하기보다는 확장시키자는 요구로 읽는다. 이는 정전을 열기 위해서는 정전을 근대화해야 한다는 존 길로리의 발언과 상통한다.²¹⁾ 그러나 이런 입장들은 정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롭게 일으킨다. 정전의 열림과 근대화가 함께 갈 경우에 그 열림은 더 이상 ‘열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전이 근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사적인 탐사를 수행하고 또한 그와 함께 정전의 열림의 가능성을 새롭게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의 보편성을 논의하는 지평이 세계문학이라면 우선 세계문학을 하나의 문제이자 운동으로 봐야하고, 그 내용은 (탈/재)정전(화)에 있다. 정전

20) David Damrosch, *What is World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16.

21) John Guillory, *Cultural Capital: The Problem of Literary Canon Form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55.

의 문제는 특수한 한 국민문학의 보편화의 가능성과 세계문학의 진정성을 펼치고 추구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때 정전의 문제란 비서구 대 서구, 전근대 대 근대, 주변부 대 중심, 특수 대 보편(이렇게 대립되는 보편은 사실상 특수한 보편이다)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들을 논의하는 사이에서 가장 적절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한국문학 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라는 비서구 문학의 고민들을 보편적 지형 위에서 공유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한 노력들이 『아시아』, 『세계의 문학』, 『자음과모음』, 『창비』 같은 계간지들이나 출판사의 노력들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거기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노력들이 어느새 앞서 말한 이분법적 대립들의 후자 항목들을 향한 귀환 궤도에 실리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때로는, 아니 자주, 참조해야 할 것들이지만, 그 ‘사이’를 보고 그 자리에 서야 한다. 여기서 ‘분다’는 것은 지역과 세계적인 시야를 함께 견지한다는 것이고, ‘선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왕복운동을 가리킨다. 바로 여기서 분단 체제의 인식 위에서 논의되는 민족문학론의 논의 같은 것이나 비서구 작가들의 교류와 연대, 문제의식의 전지구적 공유와 공동의 실천, 그리고 그 결과의 효용도 의미 있고 새롭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John Guillory, *Cultural Capital: The Problem of Literary Canon Form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55.

Pascale Casanova, *The World Republic of Letter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10.

유희석, 「세계문학의 개념들: 한반도적 시각의 확보를 위하여」, 『세계문학론』, (김영희 · 유희석 엮음), 창비, 2010.

- 박상진. 「동아시아에서의 단테의 수용과 변용을 통한 문학의 보편성과 근대성」, 『문화과경계』, 2006년 겨울호, 77-96쪽.
- 박상진. 「글로벌 시대에 묻는 이론의 자리: 새로운 보편주의를 위하여」, 『세계의 문학』 124호, 2007, 169-182쪽.
- 박상진. 『비동일화의 지평: 문학의 보편성과 한국문학』, 고려대출판부, 2010.
- 박상진. 『단테의 <신곡> 연구』 아카넷. (근간).
- 윤지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둘러싼 쟁점들」, 『세계문학론』, (김영희 · 유희석 엮음), 창비, 2010.
- Kwame Anthony Appiah, “Geist Stories”, *Comparative Literature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ed, by Charlies Bernheimer, Baltimore: Johns Hoptkins University Press, 1995.
- Rey Chow, “In the Name of Comparative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ed, by Charlies Bernheimer, Baltimore: Johns Hoptkins University Press, 1995.
- 가야트리 스피박, 문학이론연구회 옮김, 『경계선 넘기: 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Death of a Discipline), 인간사랑, 2008.
- David Damrosch, *What is World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내이션과 미학』, 도서출판 b. 2009.
- 백낙청, 「지구화 시대의 민족과 문학」, 『세계문학론』(김영희 · 유희석 엮음), 창비, 2010.
- 김영희, 「지금 우리에게 세계문학은 무엇인가」, 『세계문학론』(김영희 · 유희석 엮음), 창비, 2010.
- 가야트리 스피박. <다른 여러 아시아>. 태혜숙 옮김. 울력. 2011.
- 임마누엘 월러스틴. <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김재오 옮김. 창비. 2008.
- 로버트 영. <백색신화>. 김용규 옮김. 경성대출판부. 2008.

❖ ABSTRACT

The Task of World Literature and the Problem of Universality

Park, Sang jin

The term of world literature is now becoming an issue and lens through which we need to rethink the value of literature on a more universal dimension so as to imagine newly the location of the local or regional literature that has been alienated from the field of world literature. This kind of recognition leads us to consider the term world literature in relation to globalization and universality and to locate it on a problematical territory rather than to understand it in the traditional and Western way. Therefore the concept of world literature is now given to us as a task to resolve from our particular, or more precisely, peripheral context.

The peripheral context could best operate as a possibility of reforming the West-centered order of world literature particularly in the way in which world literature obtains a more universal value. When we discuss world literature we need to consider the way of practice to re-highlight the possibility of periphery and pre-modernity without neglecting the 'light' of modernity and center. In this respect, the discourse of 'East Asia' may be useful for a transnational approach to world literature which focuses on the criticism of all kinds of centrism by foregrounding the concepts of othering and de-homogenization.

For this I emphasize the attitude and methodology of 'post' which includes the power of othering and de-homogenization. The 'posty' theories such as post-colonialism, post-structuralism, post-nationalism and post-humanism allow us to indicate properly and acutely our aim by means of freer play of thought and at the same time more just definition and practice of our thought; that is, only by embracing both indication and play can we maintain the universal value of world

literature. Here we can say that the global and local enterprise of ethics is the fundamental basis of world literature.

Key Words

논문접수일: 2011. 04. 13.

심사완료일: 2011. 05. 30.

게재확정일: 2011. 06. 10.